

제 4회 한중산업포럼 식품분야 토론

- 이준 부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출장 개요

1. 출장자 : 이준 부연구위원
2. 출장기간 : 2012년 11월 19일 ~ 11월 28일
3. 출장지 : 중국 북경
4. 출장목적
 - 제 4회 한중산업포럼 식품산업 분야 토론 및 중국의 식품시장 현황에 대한 관계자 면담과 동향 파악

5. 출장일정

일 시	일 정
11월 19일 (월)	- 서울→북경 이동 - 북경 왕징(望京) Holiday Inn 투숙
11월 20일 (화)	- 중국 유통업체 우메이(物美) 방문조사 - CJ China 김주영 팀장 방문 면담
11월 21일 (수)	- Beijing SPC Food 문상준 상무 방문 면담 - 대만계 유통업체 RT-Mart 방문조사 - 북경 한미 송지연 본부장 외
11월 22일 (목)	- 일본계 유통업체 Ito Yokado 방문조사 - 대만계 백화점 新世界 방문조사 - 제4회 한중산업포럼 식품분야 패널 참석
11월 23일 (금)	- 북경 현대 제3공장 방문 - 제8회 한중농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경 사무소 주관) 참석
11월 26일 (월)	- KoXian 신희주 대표 (시안지역 유통업체 운영) 전화 면담 - 북경 롯데마트 이근택 부장 방문 면담 - Carrefour 및 Wal-Mart supercenter 방문조사
11월 27일 (화)	-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吕宁, 丁毅 연구원 방문 면담 - 자료 정리
11월 28일 (수)	- 북경→서울 이동

6. 출장내용

(1) 제4회 한중산업포럼 식품분야

- 주제발표 : 중국 식품공업 발전현황, 정책, 전망 (吕宁, 공업경제연구소 조연구원)
- 발표내용
 - 중국 식품공업 구분 : 식품가공 및 제조, 음료 제조, 담배 제조, 소금 채취 및 가공
 - 식품공업의 총생산은 증가 추세

- 최근 5년 사이, 식품공업의 총생산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2%의 성장세를 기록
- 세부품목 중 인스턴트식품과 영영보건식품 제조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기록
- 식품생산은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
- 최근 중국 식품공업의 발전은 시장의 성장에 기인
 -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비행태 변화
 - 소득증대로 인한 식품 소비의 고급화로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연관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식품공업의 발전 촉진
- 중국 식품공업의 정책방향
 - 식품공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주요 기술 혁신과 산업화,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자원의 종합적 이용
 - 식품안전감독 능력배양, 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품질검사 강화 등을 통한 식품안전 제고
 - 식품공업 분야의 외자 진입 관리 강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을 통한 국내 식품공업 안전 보장
 - 합리적인 식습관을 유도하여 과학적이고 건강한 식품소비 촉진
- 세부 목표
 - 식품품질 안전 표준체계 마련
규모이상의 생산기업이 GMP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
60%이상의 기업이 HACCP 인증 기준을 도달하도록 유도
식품품질 표본 검사 합격률 제고
 - 식품공업 성장 촉진
연평균 15%의 식품공업 총생산 목표
 - 식품과학기술 혁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총 생산액의 0.8% 유지 목표
주요 설비의 국산화를 50% 달성하고 해외 의존도 축소
 - 식품공업단지의 지역 재배치 추진
중서부와 동북부의 식품공업 생산 비중을 60% 상향 추진

□ 토론내용

○ 식품산업 가치의 재조명

-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4조 달러로서 반도체 산업의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
- 식품산업은 상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이 작고, 인구 및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신규 시장창출이 가능
- 식품산업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 및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 식품안전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증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간편식품 판매 증가, 각국의 고유음식에 대한 관심 제고

○ 국내 식품제조업의 외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

-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짐

○ 한국 식품산업의 정책방향은 기존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

-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총괄한 푸드시스템 관점에서의 통합적 정책 추진
-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2008)」을 통해, 식품안전제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

○ 중국 식품시장의 높은 잠재력

-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도시인구 및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며, 전체 식품시장의 규모를 확대

○ 한중 FTA는 한국 식품산업의 위기이자 기회

-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분야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식품의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대

현재 대중국 수출 주력 상품인 가공식품은 식품안전성 및 고품질에 대한 수요 증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식품의 관심 증가로 수출 증가 예상

(2) 중국의 식품시장 현황

□ CJ China 김주영 팀장 (11월 20일)

- 현재 CJ Food의 중국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현지 생산 제품 비중은 60%이며 나머지 40%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품
 - CJ의 매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가장 매출이 좋은 제품은 소스류
 -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는 중국내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 소스류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여러 소스 중의 하나로 인식
 - 현지 생산되는 제품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간의 중복문제는 없음
 - 중국 현지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제품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
-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 대형마트의 입점이 까다롭고, 따라서 매장내 좋은 위치에서 판매되기 어려움
- 중국내 한인교포 상대로의 판매에서 중국시장으로의 판매 확대가 절실하나 아직까지 중국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미비
 - 현재 비빔밥 전문식당인 「Bibigo」 런칭을 통해 관련 소스의 판매 신장 기대

□ SPC 파리바게트 북경지역 법인장 문상준 상무 (11월 21일)

- 파리바게트는 1995년 상하이에 1호점을 개장한 이후 현재 중국내 104개 매장 운영중
 - 상하이 지역과 북경 지역의 소비자 성향이 다름
 - 일찍부터 서구화된 상하이 지역은 서양식 제과류 및 샌드위치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반면, 북경 지역에서는 매장에서 갓 구운 빵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 상태에서 파리바게트 입점으로 빵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꿈
 - 북경 지역 최초의 영업장 내 구운빵을 판매하였으며, 현재 여러 중국업체들이 이를 벤치마크하여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맛이 나 운영 면에서 경쟁력 확보

- 브랜드 빌딩에 성공

북경의 20~30대 젊은 여성이 주요 고객층이며, 이들로부터 커피는 “스타벅스”,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 빵은 “파리바게트”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화 성공

초기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중상위층 이상이 수요할 수 있는 고가에 책정되었으나, 최근의 중국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10% 정도 더 비싼 수준으로 책정되어 중산층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브랜드 파워 유지를 위해 한국과 동일 레시피 적용하여 맛의 일관성 확보하고 있으며, 약 10%의 빵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제작

- 현지 공급망 확보

상하이 근교에 빵의 기본재료인 생지(반죽) 공장이 위치하여 중국 전역의 파리바게트 매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북경은 냉동트럭을 이용하여 3일 소요

- 중국 위생당국의 규제가 가장 큰 장벽 중 하나

매장 내 위생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우며, 규제조항이 모호하여 위생당국의 재량이 매우 커서 이에 따른 리스크가 항상 존재

□ KoXian 신희주 대표 (11월 26일)

○ 현재 중국 중부지역인 시안(西安)에서 식품유통회사 운영

- 북경 지역과 달리 시안(西安)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한국식품 시장은 교민을 위주로 한 시장이 아니라 현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인 점이 특징

○ 동일한 제품인 경우,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

- 중국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원가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제품 공급측면에서 현지 생산된 제품들이 안정적

○ 예전에는 한국 식품들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 중국의 공산품 가격 급증으로 인해 가격 장벽 해소

○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한국 분유의 수입이 늘었으나 중국인들이 접

할 수 있는 유통경로가 거의 없으며,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하기에
공급량이 부족

○한류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이에 따른 한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북경 롯데마트 이근택 부장 (11월 26일)

○매장내 판매 현황

- 스낵류에서 오리온 (중국 현지생산) 제품이 선전

일본제품들과 경쟁관계는 아니며, Kraft 제품의 매출이 가장 높음
최근 초콜렛 매출이 신장

한국제품에 대한 모방제품은 아직 없음

- 유제품

신선우유의 경우 비교적 소비가 작았으나, 최근 다시 증가 추세
한국에서 생산된 우유의 시장 잠재력은 풍부하나 아직까지 유통에
문제가 있음

유산균 음료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향후 학교 급식시장에 대한 잠
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

자국산 분유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가 큼

- 신선제품

두부시장이 매우 크나 아직까지 한국제품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
최근 육류 소비 증가 추세

김치 판매는 양호한 편이며, 모두 중국 현지에서 생산 (종갓집 김치)

- 수입식품

다양한 한국제품들이 수입식품 코너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유자차, 김, 캔참치 등의 매출이 높음

- 주류식품

중국 백주 판매가 주를 이루며, 일부 와인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대중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PB(Private Brand) 제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하여 아직까지 PB 제품을 선호하지 않음

- 유통업체 사이에서의 경쟁 심화
 - 이미 좋은 위치에 많은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입지
2~3선급 도시로 확장 전략
현재 영업점 수는 101개이며, 북경 지역에 12개 매장 운영중
-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리닝(呂宁), 위딩(丁毅) 연구원 면담
(11월 27일)
- 소비패턴의 변화 조짐
 - 2005년 이후 식품의 양에서 질로의 변화 조짐
소득 증가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가 다양해짐
2010년 이후에는 소비패턴이 녹색식품에 대한 선호로 변화되고 있음
유통기한이나 방부제 유무에 대한 라벨에 관심 증가
 - 잡곡에 대한 소비가 증가
 - 도·농간 소득차이 심화
농촌가구의 소득 증가로 소비시장의 확대 예상
- 다양한 소비패턴
 - 지역이 다양하고 지역별 선호음식이 다름
예를 들어, 남쪽은 단음식을 선호하고, 북쪽은 짠음식을 선호
- 중국 식품소비 연구에 있어서 지역 구분 방식의 변화
 - 과거에는 단순히 중국 전역을 동, 중, 서부로 나누었으나, 현재는 동, 중, 서, 동북으로 구획
동부는 연안에 위치하여, 제고 및 가공이 발달
서부는 자원이 풍부하고, 농부산물업 및 목축업 발달
중부는 생산, 제조, 완성품 강세
동북부는 기후조건이 상이하고, 재배하는 농산물도 다름
- 중국의 저조한 유제품 선호
 - 소득증가와 함께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급격히 감소
분유소비 감소가 전반적인 유제품 소비 감소로 확대
국산 분유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외산 유제품 선호도 증가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 중국의 유제품 산업은 대형 그룹 위주로 재편
상대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쉬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으며, 현재 안전성을 위한 정책 마련중
- Cold Chain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
고속도로망의 발달과 냉동차량의 증가로 인해, 서부 벽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소도시에도 신선유제품 공급가능
- 중국의 복잡한 식품검역 체계
 - 국무원 산하 식품안전소조에서 관할하고, 위생부에서 통합관리
그러나 각 부처별로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중복문제 심각
- 11/5 규획과 12/5 규획
 - 11/5 규획이 식품의 양적, 고속 성장을 위주로 한 정책이었다면, 12/5 규획은 소비 촉진을 위주로 한 구조 개편에 방점
 - 주요 내용
 - 소비자 생산을 견인하는 구조로의 변화를 통해 식품공업 구조의 변화 유도
 - 제조업을 특성에 맞게 4대 지역으로 합리적 배치
 - 식품업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위주로 변화
- 식품공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부동산 및 중화학 분야의 침체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식품공업분야에 대한 주목
 - 주요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투자 확대
 - 국유기업은 연구투자를 선도하고, 민간기업들은 선택적 투자 유도
 - 산·학·연 공동 연구 활발